

# 시사고발 프로그램 고발에만 급급, 소비자도 불만이다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시사고발 TV 프로그램이 변하는 오류를 소재로 황당한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시청자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코너가 있다. KBS의 개그콘서트 '황현희PD의 소비자고발'이다. 개그맨 황현희의 독설과 구박 앞에 개그맨 유민상은 늘 말 한마디 못하고 기막혀 한다. 고개만 흔들면서 당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재미

를 준다. 당하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어떨 때는 피해자의 곤궁한 처지에 공감을 느낀다.

개그코너처럼 웃으면서 넘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은 실제로 피해자를 만들고, 사람들을 곤궁하게 만드는 폐해가 심각하다.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으로는 MBC의 '불만제로', KBS의 '소비자고발', SBS의 '사기에방프로젝트 트릭'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게시판에는 방송 피해자의 하소문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경제문제를 다루면서 경제원리에서 벗어난 논리를 부리하게 전개하고, 시청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소재만 골라 방송하는 모습은 이들 프로그램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들 방송이 과연 소비자를 위하는지, 적합한 방법론을 택하고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 정말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방송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먼저 시작한 '불만제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활감시 프로그램을 자처하며, 21세기 소비자들을 위한 권리대장전을 선언했다. 시사프로그램인 'PD수첩'이 진화되어 대중적인 진화력을 가진 프로그램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은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에서 경험이 많은 PD들이 주도한다. 사

회고발 프로그램의 제작 경험과 상업방송 특유의 화제 만들기 경험이 어우러져 소비자고발이라는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제작진이 생각하는 소위 '공공'의 이익이 과연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첫째, 이들 프로그램은 공공성을 추구하고 말하면서도 철저히 대중적 인기와 시청률 극대화를 추구한다. 상업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과 그 구성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제작 내용이 마치 스캔들을 터뜨리는 것처럼 상황을 설정하고, 시청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드라마틱한 연출 방식을 동원한다.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자세히 관찰해보면 문제가 없는 경제활동이지만, 제작진의 기막힌 상황 전개는 마치 범퍼의 현장을 들킨 것처럼 돌아간다. 그 결과 소비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보다는 상징적인 조각으로 끝맺음을 한다. 스캔들 폭로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마땅한 소비자의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의 반발이 심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나자, 방송 시작과 끝 부분에 자신들이 소비자를 구한 영웅이라는 표현을 넣는다. 언제 보도한 결과로 정부가 무엇을 반영했다는 식이다.

하지만 그런 조치가 소비자의 이익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어 소비자의 부담을 늘린 것인지는 따져 볼 일이다. 정말로 공정성을 추구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한 건 터뜨리기식 구성을 지양해야 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에 맞춰 인터뷰와 검사 방식을 골라 쓰기보다는 비판자와 반론 모두를 보도에 포함하는 구성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한



용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탄탄한 논리 전개는 찾기 어렵고, 수사적 문구와 감성적 언어를 소비자 피해의 증거로 사용한다. 경제현상은 몇 마디 언어로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사실 시장에서의 거래참가자는 자유롭게 참여하고, 제3자가 그 결과를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을 낳는다.

또 제조업자나 기업의 행위를 피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해를 부르기 쉽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문제로 인해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반감이나 반시장적인 결론을 유도하는 현상이 반복한다. 이처럼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실체는 근본적으로 경제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다. 경제이론을 철저히 이해하고 경제현실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작진의 임의적인 판단을 결론으로 유도하기 위해 방송 내용을 부리하게 짜집